

OPINION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도 인류 최초의 인공 위성이 발사됐다. 구소련은 그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11월 3일에 살아있는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 발사에 성공한다. 스푸트니크 1호는 83.6kg 원형 캡슐 형태였다. 이 인공위성은 지구궤도를 시속 3만km에 속도로 돌았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9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계획은 지난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지속되면서 발사체 개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태양계 탐사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첨단무기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소련을 한 수 아래라고 평가했던 미국의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미국의 언론들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성공을 자유주의와의 경쟁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로 묘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에 자극을 받아 우주탐사 분야에서 소련에게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의 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소련과 미국의 우주탐사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망을 비는 달, 변명의 달

미국은 1958년 여러 기관들을 통합해 미항공우주국(NASA)을 창설한다. 미항공우주국은 설립 직후 바로 유인우주비행계획인 '머큐리계획'에 들어간다. 그 결과 1961년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앨런 셰퍼드 주니어를 실은 머큐리 프리덤 7호 발사와 비행에 성공한다. 196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10년 내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후 달 탐사 계획이 급진전되면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16일 달 표면에 착륙함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된다.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전까지 달은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달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왔다. 달은 지구의 조수 형성과 지구의 자전축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기후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광원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달은 인류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많은 신화와 이야기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달은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됐고, 고대인에게 달은 신비와 두려움이 상징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달은 낭만 그 자체였다. 달은 혼자 빛날 수 없다. 달빛이 없는 질흑같은 밤이라도 좋은 날씨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

다. 달빛으로 물든 세상 밖으로 어머니의 소원이 은하수처럼 흘러간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이 은하수를 따라 정화수를 담은 그릇에서 달로 이어진다. 그런데 달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 변명의 달로 바뀌고 있다. 김건희 씨는 구수 기소 다음 날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이라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호수 위를 비추는 달이 얼마나 고요하고 낭만적인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가장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것이 달빛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별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낯설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김건희 씨는 자신을 가장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별의별 의문을 쫓고 있는 하루하루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말을 빌려보자. 햇볕에 바래낸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런 태도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달을 변명의 도구로 삼지 못했을 것이다. 달은 지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춤을 추고 있다. 달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짧은 생애 동안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원형이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을 자신의 변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가벼움이 괴롭다. 곧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달이 가장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가위다.

기고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장



올해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관리 부실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30년 넘은 배수펌프가 폭우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설하우스 수십동이 침수되고 충남 부여군·청양군, 전북 익산시 등에서도 펌프가 멈추거나 수문 개방이 늦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 지역인 구례군의 경우에도 전력 공급 문제로 펌프가 가동되지 않아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고 있으며, 농민들의 땅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배수펌프장은 통상 20년 빈도의 강우(시간당 60~70mm 수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기존 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펌프장 용량 확대와 설계 기준

'반복되는 극한 호우' 배수펌프장 관리 강화가 답이다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책임이 불분명하다. "관할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상·하류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운영 매뉴얼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농경지가 이미 침수되고 있음에도 담당자는 "수위가 기준치 이하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적된 매뉴얼은 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결국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도 개선이 더디다며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배수펌프장은 정밀점검에 관리되는 시설이 아니다. 평소에도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가동 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리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가 낮아 전문성과 책임감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수리시설 관리 인력의 고령화다. 상당수가 이미 고령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나 홍수와 같은 재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배수장 관리 전담팀 신설과 함께 원격 제어 시스템 확대와 관리원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하다. 아울러 광역 단위의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상 상황에 따른 하천 수위, 펌프장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이상기후 상황에서 기존의 설계 기준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어 △배수 용량 증설 △펌프 대수 확충 △배수로 준설 등 물리적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저류지 확대와 우수관 확충 등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종합적 수해 예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서만큼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책임 있는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도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역시 첨단 기술과 선제적 대응 체계로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배수펌프장은 단순한 기계 시설이 아니라 농민의 생명줄이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피해는 곧바로 농민과 지역사회의 삶으로 이어지므로, 극한의 이상기후 시대에 배수펌프장 관리와 시설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인내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관리 강화와 수해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고

조정현

영암읍주민자치회 감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RE100과 재생에너지란 단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이제는 일상언어가 된 듯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점에 지구의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큰 관심 사항은 RE100이다. RE100은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출범한 것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500대 기업을 포함해서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우리나라도 SK, 삼성, LG, 현대, 롯데, 네이버, 카카오 등 3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도와 날씨의 패턴이 바뀔 위험을 의미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해 현재 지표면의 온도는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보다 1.2°C 상승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5°C 상승까지가 인류가 살아가기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인류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지속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3.1°C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지구는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

영암의 미래 'RE100'

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에 RE100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RE100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게 돼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RE100에 대응하도록 방안을 구상하며 RE100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RE100 산업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하는 지역에 산단을 조성해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RE100을 실현하는 구조이다. 이는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에 대해 발표를 할 때면 늘 '권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남권'이라는 표현으로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 서남권역을 묶어 RE100 산단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일이겠지만, 영암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영암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이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중요하다. 영암호의 수상 태양광과 간척지, 삼포지구 등에 태양광과 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바이오수

소 생산시설 30기를 설치해 대불산단 기업 등과 연계하면 RE100을 즉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확보 등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산재해 RE100 실현단계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대불산단에는 건조물량 전량을 수출하는 '현대 삼호조선'이 있다. 앞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늘어날 선박 수주량과 AI 시대의 데이터 전환은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RE100을 위해 영암의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 부가적으로 RE100 산단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요구한다. 영암군은 이미 나뭇도를 중심으로 복합도시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곳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현 정부가 원하는 자산지소형 미래지향적 'RE100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RE100은 영암군 미래의 먹거리이다. 영암군은 농업군에서 대불산단이 들어오며 기업을 가진 군이 됐지만, 전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혜는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RE100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 보편복지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영암군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크게 상승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불산단이라는 국가산단을 지닌 준비면 영암이 서남권 RE100 산단의 허브가 될 날을 기대한다.

사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속도 내길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공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했는데 최근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은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에 4만2100㎡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23년 11월 27일 착공식을 가졌다.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지 26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다. 시민들은 면허시험장 이전 후 각종 실기시험과 검사를 받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까지 이동하며 큰 불편을 겪어왔다. 나주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고 광주 지역 운전면허원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비용이 54만원이나 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면허시험장 이용하면 6만9000원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착공해 올해 말 완공,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던 광주 면허시험장 공사는 시작도 전에 표류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건립비가 290억원에서 2023년과 2024년 보상비 추가 등으로 370억원으로 증액된데다 부지내 지장물 소유주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겨우 겨우 지난해 말 지장물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갈비비 대폭 인상 등이 발목을 잡았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비 예산이 증액된 370억원에서 45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광주시 등은 이미 투자된 금액 220억원을 제외한 건립비 150억원을 국회에 추가로 요청, 42억원을 반영시킨데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64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10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44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화순탄광 '근현대문화유산' 지정돼야

1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내 1호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이하 화순 탄광) 일대에 대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화순군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한 것이다. 대상 필지는 총 73필지, 면적은 9만8136.5㎡로 화순광업소 내 생산구역, 적치구역, 운반시설을 비롯해 석탄을 운반하던 복암선 철길 등이 포함돼 있다. 화순군은 탄광이 가진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추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지정될 경우 탄광 인근 부지와 시설에 탄광 컨벤션센터, 광부 학교, 글로벌 소통센터, 탄광문화원 등을 건립,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것으로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 가치를 인정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되면 보존·관리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서류 검토 및 보완과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을 결정한다고 한다. 화순탄광은 1905년 '국내 제1호 광업권'을 등록한 이래 산업 최일선에서 전국 각지에 석탄을 공급한 근대 산업화의 상징이다. 생산량이 정점이던 1989년에는 1600여명의 직원들이 연간 70만t의 석탄을 채굴하는 등 강연·삼척·영월 탄광과 함께 전국 4대 탄광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주 에너지원의 변경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2023년 6월30일 폐광됐다. 문제는 탄광 폐지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탄광촌 고유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화순광업소 복지문화관, 화순광업소 부속병원 등은 이미 소실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근대 산업화 상징으로 역사·인문학적 가치가 큰 화순탄광이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집부 370-7082 사전부 370-705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